

요절복통
여래네 집
#25. 아빠의 청춘
스튜디오들

지금 모습에서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래 아빠도 한 때는 열혈청년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야 아냐.
연애하는 쪽 이태백이도
음과 같 그런 시를
쓰고 싶어.

좋았어, 그러면 그 때
그림은 내가 그려줄 테니
같이 시화전을 열자.

그러나 만만치 않은 현실에 꿈을 접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선 밥은 먹어야
살지 않잖아.

나도 부모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그림을 그리겠단
말을 못하겠더라고.

오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여래 아빠의 회사 얘기랍니다.

대북중심 자재과

그래, 중계집과
소속집안이 일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날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 나고장.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 봐요.
답답해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면

일처리를 이따위로
해 놓고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변명을
해요, 변명하!

그래서 생각해 내 게 혼날 때 표정은 그냥 두고
머릿속으로는 애국가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꽤 길군.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중성을 다하여~

회사에서 중간위치인 여래 아빠는 자기는 밑에 직원들에게 잘 대해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복판로나 박세리 하는 걸
보면 김연아도 언제까지 잘
할지 걱정이 된다. 말야.

그러게.

자세들이 왜 김연아
걱정을 하나.
걱정을 하면
김연아가 자세들
걱정을 하게 하지.

키잉~

빨리 들어가
일하지 못해!

그리고...

어이구, 잘 하는 것이다.
책상에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나 하품은
전염이 된다지요.

날이 더워서일 거라고 자위하면서 여래 아빠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바쁜 일 없으면
퇴근 후 시원한 상머주나
한 잔씩하고 헤어지자구.

이다잉!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술자리,
그래도 비교적 술자리는 즐거운 편입니다.

일하는 거
재미없지?

그, 그렇죠 뭐.

그래서 월급은 주는 거야.
로해비! 같은 일은 자기 돈을
쓰면서 하잖아.

똥은 왕득(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파, 오늘도
난무하는 쌍둥이도
개그들.

하지만 이런 자리도 과장쯤 되면 적당한 순간에
빠져줘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계산은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자세들은 한 잔씩
더 하고 가라고.

에, 그럼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나 고장임, 안영희
들어주세요.

에호, 잡는 놈도
하나 없구나.

하긴 더 있어야
눈치만 보이지 뭐.

쉴쉴 돌아서 나오는 아빠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거쳐서 화장실에서 보았던 낙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심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랑앙이워!!
당신도 사랑하냐?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러워지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글귀도,

누가 쓴 거더라?

암튼 흥미를 주는
말이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쓸쓸해진 마음을 다짐는 아빠,
어깨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여래 아빠가 옥상 뒷밭에 집착하는 것도 다
마초가 본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여보!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해요.

이주일의 화두

구원하라. 우바새 계경

자기를 원망하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자기를 괴로워 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환관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특색은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
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단
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
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
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범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지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는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울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법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언을 나누고 있다.